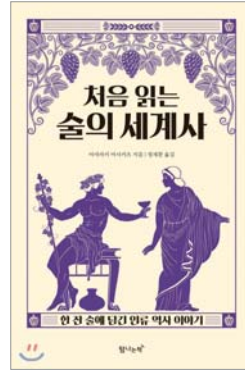


인류 행보, 술의 변화로 비교... 역사를 알면 달라지는 술맛



리더의 책장

오 세 용 스마트브루어리 대표이사(전 SK하이닉스 사장)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탐나는책, 1만6000원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술이 어떻게 분류되고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소주와 막걸리로 대표되는 우리 술이 대중적인 사랑은 받고 있지만, 세계적인 술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며 술의 역사에 대해 가끔 궁금해하고 단편적인 내용을 이따금 찾아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년 전 양조회사를 설립할 무렵이었다. 여러 책을 구해 다양한 지식에 접해 오다 지난 해 번역 출판된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란 책을 읽으며 내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어떻게 이렇듯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정리했을까 감탄하게 됐다.

저자인 미야자키 마사카츠는 일본인으로 사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세계사 교사와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며 방송과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는 술 전문가가 아닌 사학자이다. 그래서 그의 책은 술에 대한 학문적인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술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술은 인간이 만들어 마시기 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풀이 자연 발효된 봉밀주가 술의 시초일 것이라는 설이 있고, 동물들이 모아 놓은 과일이 발효되어 술이 만들어 진 것을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 맛보고 취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수렵시대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술을 채집하듯 찾아 마시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며 곡물

비교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사회, 종교 생활에 술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나 살펴보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과 술의 관계도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세계 여러 술의 역사적 기원도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술들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배가 늘어나면서 맥주 생산도 활발해졌고 7~8세기 무렵에 쓴 맛을 내는 홉을 넣은 맥주가 등장했다고 한다. 남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4세가 맥주는 보리와 홉, 물로만 제조해야 한다는 맥주순수령을 발표가 오늘 날 맥주의 원형이다.

발효를 거쳐 만든 양조주를 증류하면 증류주가 되는데 증류기술의 핵심에는 증류기가 있다. 그런데 이 증류기가 원래는 연금술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증류주의 대표적인 위스키는 5세기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만 증명되지 않았고, 1172년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했을 때 그곳에 맥주를 증류한 술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술의 역사와 제조법을 알면 술맛이 달라진다고 한다. 지나치지 않으면 음주는 사회생활과 정서적 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취하는 것을 벗어나 맛과 향을 음미하는 음주 습관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 한다.

-오세용 스마트브루어리 대표이사(전 SK하이닉스 사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추천했다.

2년 전 양조회사 설립할 무렵 '술의 역사'에 관심 인간 사회·종교 생활의 매개체 '술' 역할 등 살펴 익숙한 와인·맥주 등의 익숙하지 않은 역사 알려

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음이 벽화나 발굴된 토기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다 유라시아 여러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7~14세기에는 여러 술이 사방으로 전파되고 증류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15~16세기의 대항해 시대에는 각 지역의 과일과 향신료를 이용한 술이 등장했고, 산업혁명기에는 술의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되고 칵테일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인류의 행보와 역사를 술의 변화로

와인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져 주변으로 전파됐다고 하는데 이란 북부 유적에서 출토된 7400년전 항아리에서 와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 기원전 6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전파됐고 크레타 섬을 거쳐 지중해 주변으로 확산됐다고 한다.

맥주는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럽에서 보리 재

주말은 책과 함께

멀게만 느끼던 '詩'에 징검다리 놔준 책

일기를 안 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모든 날의 기록에 코멘트를 달아주었던 좋은 선생님을 만나 열심히 썼던 적도 있지만 강산이 두번도 더 변하고 남았을 적 옛일이 됐다.

버스 정류장에서 외계 생명체를 본(?) 날 감격에 벅차 일기장에 쓴 시를 동생이 가족들 앞에서 신나게 읊어대고 모두가 발을 구르며 폭소할 날, 자존심에 생체가 나 펜대를 꺾었다. 흑역사의 원인이 된 시와도 이별했다. 황현산의 '우물에서 하늘 보기'는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시의 곁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준 징검다리에 놓인 디딤돌 같은 책이다.

최승자 시인은 '세기말'이란 시에서 "칠십년대는 공포였고 팔십년대는 치욕이었다. 이제 이 세기말은 내게 무슨 낙인을 찍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저자는 "돌이켜보면 저 공포와 저 치욕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행'을 가리는 '이름 붙일 수 있는 불행'이었을 뿐이었다"면서 "유령의 군대와 싸우는



우물에서 하늘 보기

황현산 지음/삼인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벌써 유령 아닐까"라고 응답한다.

책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뿌리 뽑힌 상태에서 시작돼 불안이 수시로 찾아오고 이를 욕망이 가린다.

욕망조차 비어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해선 또 다른 욕망이 필요하다. 욕망을 욕망으로 채우는 일이 되풀이되는 세계에서 달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을 때에야 문득 사람들은 뿌리 없이 유령과 싸우고 있는 제

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찍이 시인은 '자본죽'에서 "새들도 자본 자본 하며 울 날이 오리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저자는 "그날은 재빨리 찾아왔고 다른 세계를 여행하던 최승자는 바로 그런 날들의 한복판에서 우리 앞에 한 번 잠시 나타났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최승자는 자기 내장을 다 드러내는 사람의 선연한 말을 비수처럼 내던져, 한 번 귀 기울인 사람이라면 결코 잊어 버릴 수 없는 목소리를 만들었다. 자신을 배설물로, 잉여물로 규정하는 그에게는 감출 것이 없었다"고. 그의 시를 안 읽고 배길 수 없다. 시(詩)와 서막한 이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시와 시인에 관한 이야기 27편을 묶은 시화집.

272쪽, 1만3000원.

추신: 외계 생명체의 정체는 비문증으로 인한 헛것이었습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딜쿠샤

시인은시를 쓰기 위해 서울시내 곳곳을 누빈다. '만리동 책방만유인력'부터 '대림동 중앙시장 돌아보기', '아현역 나빌레라'에 이르기 까지 책에 실린 글은 모두 서울의 지명을 품고 있다.

온종일 쇠방치를 두드려다 급호동의 고깃집 테이블에 웅기종기 모여 피로를 녹이는 철공소 인부들, 대림동 중앙시장 좌판 뒤에 쪼그려 앉은 나이 든 상인, 손기정 공원에 모과가 떨어져 구르는 장면을 시인은 하염없이 바라본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아닌 골목 언저리에서 도시가 꼭꼭 숨겨둔 이야기를 찾아내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들리고 싶지 않지만 결국 들려버린 어떤 고독사를, 검게 탄 누룽지처럼 언덕에 붙은 마을을 보여준다. "울지로3가 골목은 꼭 순대를 닮았지. 소문과 맛의 길이를 재어본들 비밀은 비밀. 줄지처럼 헛바닥이 길어진 사람들. 간절함이 구불구불 산수갑산인데"(산수갑산 아바이순대) 중). 178쪽, 1만원.

전장석 지음/상상인



숫자를 믿는다

시아더어 M. 포터 지음/이기홍 옮김/한올아카데미

'통계(statistics)'는 '국가의 과학(science of the state)'을 가리킨다. 국가의 인구와 국민총생산, 실업률 등의 숫자는 사람들의 삶을 집약해 표현할 뿐 아니라 온갖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책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숫자를 숭배하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표준화를 요구받는 숫자들은 타협과 협약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숫자의 심층적 의미와 신념을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학생들을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지능지수(IQ) 검사, 공공의 분위기를 수량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약물의 인허가를 돕는 정교한 통계적 방법론들, 공공사업의 평가에 사용되는 비용-편익 분석 등 저자는 기계적 객관성과 몰주관성을 추구하는 숫자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512쪽, 5만9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바이든, '법인세 인상' 타협 시사... "다음 주 공화당 만나" /사진 뉴시스
- ▲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왕, 징역 10개월 추가 선고

- ▲ 中,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전면 중단 선언...보복조치 일환
- ▲ 베이조스 '블루오리진' 7월20일 우주 간다...한 자리는 경매로



- ▲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서에 대만해협 안정 촉구 /사진 뉴시스
- ▲ 중국 노동절 연휴 박스오피스 2900억원...사상 최대기록